

# 순천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음 키움 프로젝트'

## 관심군 학생 온마을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 실시

### 수업 참여·학교 적응 힘든 관심군 학생들 대상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은 관내 초·중·고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형 온마을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온마을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단체) 위탁 프로그램으로 마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마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수업 참여나 학교 적응에 힘든 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아탐색, 문화, 예술, 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 키움 최적 함께하는 순천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적응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를 통해 학생들의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많은 위탁교육과 대안교육으로 지쳐있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셔서 너무 감동했다. 또한 나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주시

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대 되어 우리 아이처럼 학업 중단까지 생각할 정도로 학교 생활이 힘든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교육지원청 이용덕 교육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보살피는 문화가 형성 되었을 때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이고 곧 순천교육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온마을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은 매일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며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마지막 주에 예정된 최종결과 보고회를 통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성과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 내용을 평가하여 더 많은 학

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광양교육청, 보건교사 응급처치강사로 양성

### 보건교사 13명 대상...KBSL Provider(한국형 기본소생술) 교육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응급 처치강사 양성을 위하여 5일 보건교사 13명을 대상으로 KBSL Provider(한국형 기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이 가능한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보건 업무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번 강사 양성으로 각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보건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내부 강사로 양성하고, 새학년집중기간과 같은 수업 외 시간에 응급처치교육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교육 참석 부

담을 완화하고 학교별 출장 예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건교사 대표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응급처치강사 양성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강의 방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조정자 교육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에서 다시 한번 기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담양교육청,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위한 만발의 준비

### 전라남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유학학교와 농가형(홈스테이) 2가구, 가족(체류)형 1가구에서는 유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담양 유학학교인 금성초, 봉산초등학교 교장은 서울에서 내려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청정 농촌생활의 경험과 체험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작은학교만의 특색교육과정,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와 연계한 주말 마

을학교 프로그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에 방문한 유학생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유학을 신청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다. 직접 방문한 유학학교 교장, 농가 부모, 담양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안내와 진심 어린 따뜻한 맞이로 마음이 되며, 농촌 유학생들이 기대된다"라고 만족해하였다.

담양교육지원청 김철주 교육장은 "빛깔과 향기가 더해지면 작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찾고 머무는 담양교육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마을-학교-지역사회의 상생협력 파트너로 학생들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 성료

### 교육복지사 대상으로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월27~29일, 2월3~5일 각 사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사례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성료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 기수별 20인 이내로 제한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됐다.

연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학교현장에서 행복을 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례관리 방법 및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학교 근무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 간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복지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맞춤형 학생지원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대자중 이육남 교육복지사는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형 사례관리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연수에서 익힌 방법들을 학교 현장에 잘 적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취약계층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역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광주형 교육복지안전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